

## 12강 | 강연 요약문

# 지구온난화, 기후변화 영향과 재해 그리고 탄소중립

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환경건설·지구해양 분과 **오성남**

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(IPCC)에서 발표한 “제6차 종합보고서”는 ‘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증거는 더욱 뚜렷해졌으며, 그 강도도 더 강해지고 있다’는 것이다. 전 세계가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15)에서 세운 목표였던 “전 지구 평균 지표 기온 상승 폭 1.5℃ 제한 값”이 2030년대에 깨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함께 나왔다.

그만큼 인류가 처한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의미이다. 또한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은 2014년에는 시나리오별로 ‘1.0~3.7℃’였는데 비교하여 ‘1.4~4.4℃’로 높아졌다. 그만큼 기후변화가 인류와 지구 전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. 인위적 탄소 배출량은 2014년 2,040Gt에서 2,400Gt으로 증가했다.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,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파르게 상승, 기후변화는 더 높아질 것이란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.

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은 가뭄과 기근, 폭염과 질병, 호우와 태풍 발생 등 다양하다. 그러나 가장 우려해야 할 영향은 생태계의 변화와 해수면 상승 그리고 난민 이동과 인류의 갈등이다. 이에 대한 사례로 우리는 지난 1350년~1850년 기간 겪었던 중세 소빙하기(LIA)의 참사를 교훈적 경험으로 보아야 한다.

## 연사 약력



**오성남** mateo0319@hanmail.net

- (미) Oklahoma University 이학박사(Ph.D.) (대기과학)
- (미) Maryland University 대기과학과 교수
-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구환경정보연구부장
-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실장 / 환경부 지구환경연구소장
-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초빙교수 / 송실대학교 특임교수

